



20만 마리 나비·50만 송이 봄꽃...생명이 춤추는 함평

‘함평나비대축제’ 25일~5월6일 엑스포공원 일원...캐릭터 황박이 첫선 버스킹·댄스 경연, 나비날리기 등 다채...순금 황금박쥐상 관람도 가능

함평나비대축제가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 함평군을 상징하는 호랑나비 등 17종 약 20만 마리의 나비와 메리골드 등 30종 50만 송이의 봄꽃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나비의 문’과 ‘황소의 문’에 포토존과 정원을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 나비의 꿈 싱어롱 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의 흥을 끌어올릴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26, 27일)와 나비댄스 경연대회(5월 3일)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매년 인기리에 운영 중인 실내·외 나비날리기체험과 동물농장 먹이주기, 젓소목장 나들이 등 다채

로운 체험 행사가 준비돼 있다.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 있는 나비와 곤충을 만나볼 수 있다. 나비의 일대를 담은 전시 연출과 함께 동화 속 세계를 보여준다. 지난해 친환경농업관이 올해는 ‘아열대 농업관’으로 탈바꿈해 선보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도 다채롭다. 다육식물관에서는 다육선인장, 용설란 등 650종 3000본이 전시되며 수생식물관에서는 열대야자, 수련 등 72종 546본과 비단잉어 등 4종 300여 마리를 볼 수 있다. 나비곤충표본전시관에서는 희귀 나비·곤충 표본을 보고 곤충 가상현실(VR)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제작한 황금박쥐 캐릭터 ‘황박이’가 함평관광 마스크트로서 공식적인 첫선을 보인다. 황박

이 모자 만들기과 팝업스토어,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황박이를 만날 수 있다. 축제에서는 함평의 명물인 황금박쥐상도 볼 수 있다. 엑스포공원 내 추억의 공작소에 전시된 황금박쥐상은 2008년 함평군이 28억 원을 들여 순금 162kg로 만든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다. 현재 황금박쥐상 가격은 약 10배 가까이 오른 261억원으로 치솟았다. 나비대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 기간 KTX는 하루 4차례 함평역에 임시 정차한다. 또 함평역과 엑스포공원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탑승객에게는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나비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쉬고, 추억할 수 있는 생태 체험형 축제로 준비했다”며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나비와 황금박쥐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야경.

〈함평군 제공〉

목사내아, 웨딩홀 변신...나주시, 첫 공공 작은 결혼식

예비부부에 준비금 500만원 지원 경제 부담 없는 결혼식 문화 장려

나주시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공공 작은 결혼식’의 첫 번째 결혼식이 지난 21일 나주 목사내아에서 열렸다. 목사내아는 평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주시 주요 문화유적지 중 하나이지만 이날 결혼식을 위해 아름다운 무대장치와 꽃길로 꾸민 웨딩홀로 변신해 주목을 받았다. 시는 공공 작은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신부에게 신부대기실, 버진로드, 포토존 등 식장 꾸밈비용 50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여유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엔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가족·지인들과의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역사적인 장소인 목사 내아에서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을 뒀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비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지난 21일 나주 목사내아에서 ‘공공 작은 결혼식’이 처음으로 열렸다.

〈나주시 제공〉

과정에서 식장 예약과 고비용의 대관 비용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예비부부에게 소

중한 선물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7월부터 불법현수막 무관용 대처”

6월까지 제도·홍보·현장점검 강화...적발시 철거·행정처분

강진군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선다. 강진군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계고 조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군에서 지정 한 지정제시대를 통해서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현수막의 게시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 현수막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안

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용 제외 현수막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옥외광고물법상 게시가 금지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군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전 계고 후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제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기관, 광고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지정제시대 계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현수막 게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고 중심의 점

검 활동이 이뤄진다. 계고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별도의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수막 설치 시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에 게시 의뢰인, 광고업체명,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강진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관내 기관 및 광고업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인 정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황룡강에 꽃 글씨

장성군 ‘플라워 레터링’ 행사 ‘장성 방문의 해, 성장 장성’ 문구

장성군은 농업인단체들이 지난 21일 ‘장성 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황룡강 일원에서 ‘플라워 레터링’ 행사를 가졌다. ‘플라워 레터링’ 행사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에이치)연합회, 귀농귀촌인협의회 4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제2황룡교부터 문화대교까지 이어지는 17개 구간에 메리골드, 데이지 등 6만여 주를 식재하며 진행했다. 기존 식재 행사와 달리 글씨 모양으로 꽃을 심는 ‘플라워 레터링’을 도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은 꽃이 피어났을 때 ‘장성 방문의 해, 성장장성’ 등의 문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식재 작업에 정성을 들였다. 현장을 찾아 일손을 거든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업인단체 여러분의 손길로 조성된 ‘플라워 레



김한중(왼쪽 두번째) 장성군수가 지난 21일 황룡강변에서 글씨 모양으로 꽃을 심는 ‘플라워 레터링’에 참여해 꽃을 심고 있다. 〈장성군 제공〉

터링’이 ‘장성 방문의 해’의 성공과 황룡강의 아름다운 조경 완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성군은 올해 관광택시, 스탬프 투어, 버스킹 등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연중 운영하는 ‘장성

방문의 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장성군은 오는 5월 10~11일에는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도 개최한다. 프로그램 참여 및 관광 안내에 대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검색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인삼 성분’ 강진 사포닌 쌀 ‘봉황’ 출시

친환경 방식 재배...6년근 인삼 1~2뿌리 분량 함유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최근 기능성 성분인 사포닌을 함유한 프리미엄 쌀 브랜드 ‘봉황’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봉황은 인삼과 새싹삼 등 건강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사포닌을 쌀에 접목한 혁신적인 기능성 쌀로, 미호벼 품종을 기반으로 황칠나무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재제를 벼 생육 중 3~4차례 살포해 생산된다. 이 과정을 통해 쌀 1g당 34.9mg의 고품량 사포닌이 함유돼 밥 한 공기(210g 기준)에 약 30mg의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근 인삼 1~2뿌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강진군쌀조합공동사업법인 김달욱 대표는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된 봉황쌀은 이유식부터 수험생 면역력 강화까지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며 “특히 7분도미로 도정해 쌀눈을 살리고, 백미보다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현미보다 소화

가 잘 되는 균형 잡힌 쌀”이라고 설명했다. 봉황은 단순한 기능성 쌀을 넘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32개 농가가 100ha에서 계약재배를 진행했다. 40kg당 8만3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돼 일반 벼보다 2만원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2025년에는 50여 농가, 200ha 규모로 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하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강진군은 봉황쌀의 본격 유통을 위해 3월 말부터 2kg·4kg 소포장 제품을 선보이며, 초록민들레, 강진쌀판매 홈페이지,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봉황쌀 2kg은 29000원 4kg는 49000원으로 판매중이다. 특히 ‘강진 누구나 빈값여행’ 정책과 연계한 지역 홍보에도 힘쓰고 있어 관광객과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경찰 “청소년 마음 건강 지켜주세요”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 안전 지킴 캠페인...학폭 등 예방 홍보



화순경찰이 지난 22일 화순제일중학교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청소년 안전 지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경찰(여성청소년계, 교통관리계)과 교육청(학교지원센터), 군청(청소년지원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등교하는 학생에게 학교폭력·소년범죄·교통안전·정신건강 등 청소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리플릿과 선물을 나눠줬다. 장승평 화순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화순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나주시 ‘기후변화주간’ 환경부장관상

탄소중립 실천 기여...전국 지자체 중 유일 수상

나주시는 2025년 기후변화주간(4월 21일~25일)을 맞아 지구의 날 기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1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친환경 정책 추진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기후 변화 주간은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전후로 운영되며 올해의 슬로건은 ‘해보자고 기후 행동! 가보자고 적응 생활!’이다. 이는 기후 위기를 행동과 생활의 변화로 극복하자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나주시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나

부터 시작!’이라는 캠페인도 전개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상 속에서 손쉽게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장에서는 포인트제 신규 가입을 돕는 안내 부스가 설치되며 신규가입자에게 종량제봉투 3개와 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토트백, 파우치, 앞치마 중 1종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또 이날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나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관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7개소가 참여하는 ‘소동 행사’도 열렸다. 이번 소동 행사는 모든 조명을 10분간 일시적으로 소등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행사로 마쳤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